

재산피해 급증... ‘부주의’ 대다수

2021년 ‘화재 발생 현황’ 분석

피해액 201억원, 전년비 509% ↑

담배꽂초 등 원인·예방교육 절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피해와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피해는 전년 대비 509% 증가했으며, 화재 원인은 담배꽂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대부분 차지해 시민들의 각별한 안전주의가 요구된다.

5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화재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43건이 발생, 27명(부상 19명, 사망 8명)의 인명피해와 약 201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건수는 지난해 139건이 발생해 전년(882건)에 비해 743건 줄었으며, 부상자도 19명으로 전년(28명) 대비 9명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2020년 4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재산피해도 2020년 33억 1,500만 원에서 지난해는 201억 9,900만 원으로 509.3% 경증 뒀었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건의 화재로 5,53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69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 199건(26.8%), 기계적 요인 80건(10.8%), 원인 미상 46건(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는 담배꽂초가 138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조리 64건(17.3%), 사용 부주의 51건(13.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재산피해액은 201억 9,900만원으로 이중 광산구가 180억 27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11월 광산구 도전동 하남산단 내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총 8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물류업체 창고·사무실과 인접 식당 등 건물 8채가 전소되거나 그을렸다. 화재원인은 직원의 담배꽂초로 인한

부주의 연쇄 화재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안전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배승용 교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이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며 “매년 똑같은 안전교육보다 통계관리와 분석에 따른 사례 제시, 피해액 등 상세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화재 예방 대책으로 ‘시민 밀착형 화재 초기 대응체계 수립’과 소방차 진입근란지역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대학교 소방학과 강용일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추진, 화재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SNS 홍보 등 시민 밀착형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화재 골든타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신호 제어시스템 도입과 소방차 진입근란지역 소방용수시설 확충도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화정아이파크 철거 시작...절삭기로 벽체 잘라내

고층 잔해부터 본격화

지난 1월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작업이 본격화된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오후부터 철거 작업자 등을 투입해 붕괴 건물 동측 벽체를 잘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작업은 곤돌라에 탄 작업자가 절삭기를 이용해 직접 벽체를 자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잘려 나갈 부분은 미리 타워크레인으로 고정해놓고 절단을 마치면 지상으로 내려졌다.

이날 처음으로 시작된 철거 작업인 만큼 시범

적 성격을 띤 작업이었지만 현산 측은 이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철거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콘크리트 두께가 얇은 벽체 부분은 작업자가 직접 절단하는 방식이지만 두께가 두꺼운 기둥 부분은 다이아몬드 재질로 된 쇠톱(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장비를 이용해 절거한다.

이에 대한 시범 작업은 7일 이뤄질 예정이다.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를 결정한 현산 측은 9월 16일까지 붕괴로 인해 위태롭게 서 있는 201동 23층 이상 잔해 부분을 먼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잔해를 제거한 뒤 온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압쇄기를 설치해 철거하는 일반적인 철거 방식이 사용된다.

다만 위낙 고층인 탓에 비산먼지와 파편 등을 막아줄 가림막 등을 설치할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현산 측은 지난 5월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붕괴한 201동을 포함한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김혜린 기자

여성 운전자 뒤쫓아간 30대 남성 입건

음주 운전하며 여성 운전자를 뒤따라간 운전자가 스톱킹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여성 운전자를 스톱킹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여성 운전자를 20분간 뒤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만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

다. 운전 중 마주친 여성 운전자를 뒤따라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 운전자가 신고해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A씨는 중앙

분리대 회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검거됐다.

A씨는 스톱킹 혐의에 대해 “앞 차 라이트가 꺼져 있어서 따라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영봉 기자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 찜통 더위가 이어진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중흥하나어린이집 원생들이 센터 앞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설비점검 기체에 끼인 30대 노동자 사망

경찰, 작업 실수 외국인 입건

기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가동된 장치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6일 광주 광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제조업체에서 설비점검 노동자 A씨(39)가 기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와 2인 1조를 이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다른 업무를 맡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안전 지침이 지켜졌는지 파악 중이다. /윤영봉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다운로드 ONE store